

A Study on Activation Plan of Professional Manpower in a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BCMS)

Young Ho Eom[#], Suk Jin Jang, Sung Yeol Choi⁺

Disaster Prevention Safety Institute, Inc. C-428 Sigma2, 164 Tancheonsang-ro, seongnam-Si, 463-741, Korea

Abstract

A growing number of extraordinary climate instability and social malaises has results in frequent occurrence of various unpredictable disasters all over the world. In response to those, major developed countries have implemented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BCMS)" to provide the core businesses of companies and organizations in spite of disaster situations. Also, the BCMS-related industries have been developed by the trained manpower. The Korean government made laws and standards for a BCMS and operated policies supporting a BCMS, but is now facing limitation in professional manpower and BCMS-related industries. Therefore, this paper evaluated the dilemma and suggested the resolutions focusing on professional manpower as a basis of the BCMS-related industries.

Key words: abnormal climate, BCMS, professional manpower, activation plan

1. 서론

2011년 태국 대홍수와 동일본 대지진 등 기상이변에 따른 이례적인 폭우, 폭설, 가뭄, 쓰나미 등의 자연재난이 최근 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와 2015년 파리폭탄테러 등 종교, 질병, 인종, 문화적 갈등이 사회적 불안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과거에는 예측할 수 없던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아날로그적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IT기술과 자본이 집약된 기반 위에 발전하고 있다(Kim, *et*.

al., 2009). 이런 현대사회의 특성은 사소한 기술적 취약성이 커다란 재난으로 발전되는 돌발성과 위험성을 함축하게 된다. 따라서 과거 정부기관 중심의 시설적 대응 및 복구전략 만으로는 다변화된 재난상황에 대처가 어려우며(Lim, 2015), 기업, 기관 및 조직의 자주적인 대응능력 향상으로의 재난대응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주적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재난에 대응하고 기업 및 조직의 재난안전을 관리할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그 역량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Yun & Ryu, 2014). 특히, 예측 불가능하며

[#] The 1st author: Young Ho Eom, Tel. +82-2-2123-2955, e-mail. eomyoungcho@gmail.com

⁺ Corresponding author: Sung Yeol Choi, Tel. +82-31-621-2119, Fax. +82-31-621-3119, e-mail. sixbong777@gmail.com

대규모 복합재해의 발생에 자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매뉴얼 및 체계적인 훈련과 더불어 인적 자원의 전문성과 역량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기관 및 기업, 조직이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에 자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전략계획, 경감계획, 연속성 확보계획, 대응계획 및 복구계획을 포함하는 재해경감활동계획(「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기업지원법」 제2조의 3항)을 조직 내에 시스템화 하고 내재화 하는 활동을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라고 한다.

국내에서는 「기업재난관리표준」을 통해 재해경감활동계획과 업무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 이하 'BCP')을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와 업무연속성관리체계(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이하 'BCMS')를 동일한 위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해경감활동계획은 BCP로 기술하고,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는 BCMS로 기술하였다.

재해경감활동체계는 1970년대 미국의 전산분야에 적용된 재해복구계획(Disaster Recovery Plan)을 시작으로 영국 정보보안에 관한 표준(ISO17799), 2007년 국제표준(BS25999), 2012년 ISO22301, ISO22313 등으로 발전되었다. 자주적 재난대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부의 활성화 지원정책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Continuity of Operation Plan, 이하 'COOP') 및 기업의 BCP를 확산시키고, 이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2005년 바젤위원회에서 BCP기본원칙(신BIS협약)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2006년 금융당국을 통해 재해경감활동계획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금융기업이 BCP를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후, 2007년부터는 공공기관 BCP 수립을 추진하여 서울시, 삼척시 등 지자체에 시범적용 되었으며, 공급망관리(Supply Chain Management)가 필요한 제조사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BCP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Kim, et. al., 2013).

또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후속적으로 '기업재난관리표준(2010.4)', '기업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기준(2011.3)',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4.3)' 등을 제정하여 재해경감활동 우수기업 지원 및 BCMS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2012년 6월 LIG 손해보험의 ISO22301 인증 취득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국내 29개 공공 및 민간 기업이 BCMS를 도입하여 대규모 재난 및 긴급 상황, 자연재해, 전쟁, 테러, 해킹, 디도스공격 등에 대한 체계적 시나리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직 제도 활성화의 초기단계로 관련 산업에 대한 국가표준이 미비된 상태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며 제도를 운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하며, 예산 및 국가적 지원 등 관련제도의 정착에는 많은 어려움이 산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산재된 어려움을 극복하고 BCMS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Figure 1>과 같이 법·제도 개선, 지침 개발, BCP수립 지원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활성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자주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고 조직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업재난관리자(전문인력)의 활성화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기업지원법」에 근거하여 국내 재해경감활동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제공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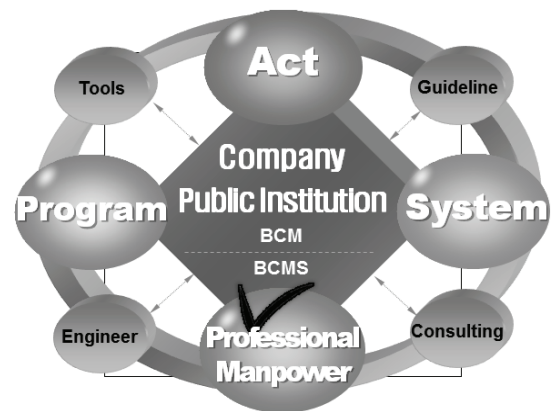


Figure 1. BCMS activating factor

분석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국내·외 사례조사 및 현황조사를 수행하고, 기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의 차별점과 이론적 기여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선진국의 사례조사 및 국내 전문인력 활성화 방안을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관리, 전문인력 활용, 자격체계 개선의 4가지 부문으로 분석하여 국내 BCMS 정착을 위한 전문인력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활성화 방안을 통한 기대효과를 추정하였다.

II. 이론적 논의

1. 재난 및 재난안전산업

재난의 사전적 의미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써 자연재난, 사회재난, 해외재난을 통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1항)하며, 안전의 사전적 의미는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으나, 법령 및 사전적 의미로 정리해 보면, ‘재난안전산업’이란 ‘각종 안전수요에 대하여 경제 주체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유·무형의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통칭’한다고 할 수 있다.

어느 분야에서든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인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산업에 대해 이해가 우선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재해경감활동전문인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재해경감활동 자체가 최근에 대두되기 시작한 새로운 산업유형을 가지고 있고, 아직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일정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정의는 연구자들의 보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정의 및 분류가 제시 되어 왔다.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2014) 및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Institute(2014),

Safety Industries Promote Agency(2014),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2008) 등의 연구에서 역시 재난안전산업을 포괄적 개념으로 방재산업, 소방산업, 안전산업으로 크게 보고 있으며 그 상세한 분류는 기존 산업과 구분이 어려운 실정이다.

2.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전문인력

일반적으로 전문인력은 ‘어떤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연구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전문’과 ‘사람의 노동력’을 의미하는 ‘인력’이 결합된 형태로써, ‘특정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인력’으로 정의 할 수 있다. 따라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전문인력이란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및 관리, 운영, 인증 대행업무 등 재해경감활동의 전반적인 업무에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인력’이라 할 수 있다.

재난 역시 예측이 어렵고 돌발성과 위험성이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전문성의 의미가 단순한 지식을 넘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다. Herling(1998)에서는 과거 개념의 전문성은 전문지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현재는 단순히 전문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직무경험, 문제해결 능력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Yun & Ryu, 2014).

전문인력 혹은 재난관리자는 일반적인 시스템의 운영에서부터 전문관리 임원에 이르기까지 그 계층 및 수준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다. 최근 경영위험 전문관리 임원(CRO, Chief Risk Officer)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다.

경영위험 전문관리 임원은 전사적으로 개별 기업이 처할 수 있는 위기를 전담하고 그 대응책을 마련하는 최고위 경영층으로, 위기관리를 소수의 전문가나 담당 부서의 일로 넘기지 않고 최고경영자를 정점으로 하는 전사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직책이다. 경영위험 전문관리 임원의 역할은 위기상황을 가정하여 상시적·전사적인 리스크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원활히 운영하는 것으로써 외부 환경변화가 전사적으로 또

는, 각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여 리스크 발생의 파급효과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 위험 전문관리 임원은 환경변화가 초래할 위협과 기회를 능동적·시스템적으로 분석, 전사적 리스크관리위원회(Risk Management Committees)를 통해 이를 공식화·체계화하는 등의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3. 재해경감 관련 선행연구 검토

일반적인 측면에서 재난 및 재난관리에 관한 연구는 총체적 접근을 통하여 위험사회 한국과 위기관리, 재난의 유형과 재난관리의 과정, 한국의 재난관리 체계 및 외국의 재난관리 체계, 재난관리 사례연구 및 실증분석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재난 및 위기관리에 관한 지침의 역할을 제공했다(Lee, *et. al.*, 2006).

재난 및 재난관리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대부분 조직에 관한 연구로 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Kim, 2003; Kim, 2003; Lee, 2000)와 선진국의 재난관리 조직과의 비교연구(Namkoong, 1995), 조직 개편을 통한 학습과 방향성 연구(Yang, 2004; Kim, 2004; Kwon, 2005; Park, 2008)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Petak(1985)는 재난관리 과정에 대해 제도적 또는 조직적 차원으로 예방과 완화, 준비, 대응, 복구의 4단계를 제시하였고 이를 국내에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Lee & Yang, 2004; Choi & Yee, 2006; Ryu, 2008).

이외에도 재난관리의 거버넌스 측면에서 논의(Comfort, *et. al.*, 2005; Lee & Yang, 2004; Choi & Yee, 2006; Lee, *et. al.*, 2008; Ryu, 2008)와 예산 및 재정의 측면에서 논의하여 경제성 평가 및 역량, 집행체계와 활용에 있어서 사업의 문제점, 정책적 대안, 효과적 배분방안 등의 연구(Lee, 2007; Lee, *et. al.*, 2009)가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재해경감활동관리(업무연속성관리, BCM) 분야는 주요 선진국에서도 관련 산업 자체가 최근에 대두되기 시작한 새로운 산업유형으로, 국내에서도 재해경감활동분야 전반에 걸친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활

용정책, 제도기반 등이 정립되지 못한 실정이며, 관련 연구 역시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국민안전처에서는 기업, 기관 및 조직의 업무연속성 요구가 증가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2010년 「기업의 재해경감제도 활성화 전략계획 및 산업별 재해경감활동 계획 세부지침 개발」 R&D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 「재해경감활동계획 세부기준 및 우수기업인증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2013년 「공공기관 기능연속성 계획 국내 도입방안 연구」 등을 추진하였다. 현재는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 구축 지원 프로그램 및 관리기술개발' 연구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기업의 BCMS 활성화 전략 및 세부 지침을 개발하였으며,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평가 체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또한, 제조업 및 건설업 분야에 대한 산업군별 BCP수립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공기업 등 공공기관 대상 BCP 추진전략을 연구하는 등 BCMS 국내 정착을 위한 지침개발 및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 관점에서는 마련되어있는 지침이 국외의 자료를 번역하는 단계에서 크게 발전되지 못하였으며, 산업별로 세분화 되지 않아 다수의 중소기업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등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의 재난관리 연구에서 많이 연구되지 않았던 재해경감활동관리에 관한 연구로 재난 및 재난관리 연구의 범위를 기존의 조직 및 예산 등의 연구에서 인적자원의 연구로 연구의 외연이 확장됨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인력의 활성화 정책은 향후 한국의 위기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III.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국내 BCMS 정착을 위한 전문인력 활성화 방안을 모

색하기 위하여 국내 법·제도 현황 및 관련기사, 인력 양성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관리, 전문인력 활용, 자격체계 개선의 4가지로 구분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1. 국내 법·제도 현황

우리나라는 2001년 미국 9.11테러사건,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대구지하철사고, 2007년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고 등으로 인한 재난 대응에 대한 각성으로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과 함께 소방방재청(現 국민안전처, 이하 국민안전처)을 신설 하였다(Ahn, 2010).

이후 각종 재난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경쟁력 향상 등 ‘튼튼안전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 및 기관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안

정적인 핵심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재해경감법’)을 2007년에 제정하고, <Table 1>과 같은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하고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측면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해경감법’은 상대적으로 강제성이 부족한 지원법률로서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의 개정이 미비하고, 우수기업의 인증 기준·절차가 정립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원사업에 의하여 양성된 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관리·활용되지 못하는 등 활성화 기반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Lee, 2010).

2. 국내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현황

우수한 전문인력의 양성은 기업 및 기관, 조직의 BCMS 운영에 있어서 기초가 되므로 국민안전처는 2007년 ‘재해경감법’을 제정하고, 2013년부터 <Figure 2>와 같은 전문인력 양성 및 실무 활용체계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재해경감법’ 시행령 제10조 및 「기업

Table 1. Main act on supporting system for BCP

Date	Act	Main Content	Note
July 19th, 2007	Act on Assistance to the Autonomous Activities of Enterprises for Disaster Mitig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tification and operation of Disaster Management Standards • Agency business and authorization of outstanding BCP enterprise • Assistance for outstanding enterprise • Establishing business foundation for Disaster Mitigation Activities 	Amendment (March 31th, 2010) Natural disaster → All kinds of disasters
April 2th, 2010	Company standard Disaster Mana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anning of BCMS • Planning of business goal achievement • Operation and practice • Education and training • Performance assessment and improvement 	Amendment (December 9th, 2013) Reflection of “ISO22301”
March 24th, 2011	Disaster mitigation activities based on corporate plan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ggestion of detailed planning by Disaster Management Standards 	
November 4th, 2011	Enterprise disaster relief activities, education experts operating regul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signat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 • Implementing and planning of education operation • Performing the certification test for enterprise Disaster manager • Guidance administration about operation condit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 	
March 10th, 2014	Disaster management and operating company specialized graduate school sele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liberation Commission composition and operation • Specialized graduate school selection and agreement • Specialized graduate school assignment and operation • Checking and evaluating business • Working expenses management 	



Figure 2. Training professional manpower and application system for BCP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 운영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특)한국방재협회, (주)차후,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 (재)건설기술교육원,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우석대학교, LIG엔설팅(주)의 총 7개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중 (특)한국방재협회는 「고용보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진행되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2014년 지정되어, 협약이 체결된 기업에 대한 BCMS 전문인력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특)기업재해경감협회를 통해 총 6회의 인증시험으로 재해경감활동 실무자 305명(1회: 43명, 2회: 69명, 3회: 25명, 4회: 69명, 5회: 58명, 6회: 41명)이 인증되었으며, 2016년부터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및 인증평가 전문가에 대한 인증시험도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다.

인증된 전문인력은 BCP 실무자, 기업 및 공공부문의 방재직무 담당자, 방재관련 전공학생 등으로 파악되나, 아직까지 전문인력 현황에 대한 Data Base(DB)가 없어 전문인력 활용을 위한 기초 정보가 부족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진행 중인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 구축 지원 프로그램 및 관리기술개발’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국내 전문인력 현황에 대한 DB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국내 전문인력 인증체계

국민안전처는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서 교부 등의 인증시험 업무를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0조 제2항에 따라 2015년 3월 (특)기업재해경감협회에 위탁하였으며, 인증시험을 통해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기술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단계별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국내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시험은 <Figure 3>과 같이 ‘재해경감활동 실무분야’, ‘계획수립 대행분야’,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증단계에 따라 재해경감활동 정책, 업무영향, 위협평가, 위험관리, 전략개발, 인증심사 등에 대한 객관식 및 주관식(단답형, 기술형) 문항을 통해 평가가 진행된다.

1단계 ‘재해경감활동 실무분야’ 인증시험은 35시간의 실무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취득한 후 응시가 가능하며, 2단계 ‘계획수립 대행분야’ 인증시험은 1단계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70시간의 계획수립 대행분야 전문교육과정의 수료증을 취득한 후 응시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3단계 ‘우수기업 인증평

Process	Phase I (Disaster mitigation practical activities)	Phase II (Agents for the disaster mitigation activity program)	Phase III (Evaluating and recognizing enterprises with outstanding performance)
Characterist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Training workers for disaster mitigation activities in the company 	<ul style="list-style-type: none"> Training agents for plan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Training of an Authenticator
Purpo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Obtaining knowledge for implementing and managing disaster mitigation activities in the company 	<ul style="list-style-type: none"> Planning consulting Obtaining specialized knowled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Obtaining practical knowledge for evaluating based on specialized knowledge
Outl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derstanding the disaster mitigation activity program Basic course for business analysis Basic course for risk assessment and analysis Understanding strategy and procedure of business continuity Learning ca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Planning disaster mitigation activities Intensive course for business analysis Intensive course for risk assessment and analysis Strategy design and practice of business continuity procedures Scenario development and pract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derstanding certification system Authentication of judgment standard Judgment process Examples of examination activities Practical judgment
Object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Person in charge of safe environment Person in charge of risk management Person in charge of planning & evalu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Person, who passed Phase I, can become an agent for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Person, who passed Phase II, can evaluate and recognize the enterprises with outstanding performance
Education Ti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Total: 35 hou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Total: 70 hou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Total: 35 hours

Figure 3. Educational training system of professional manpower for BCP

가분야 인증시험은 2단계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35시간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전문교육과정의 수료증을 취득한 후 응시가 가능하다.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기업재난관리자 실무분야 인증시험 6회, 기업재난관리자 대형분야 인증시험 1회가 실시되었다.

4. 주요 선진국 현황

1) 미국

2000년 West Nile 바이러스, 2001년 9.11테러 등을 계기로 국가기반체계의 개념이 대두됨에 따라 재난 및 위기관리 총괄 기관인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신설되었으며, 민간분야 재난 대비 역량강화를 위한 재난대비 인증프로그램(PS-Prep)을 운영하고 있다(Sung, 2014).

PS-Prep은 재난관리, 비상관리, 조직(기업 등) 업무연속성 부문의 재난대비 능력 강화를 위한 인증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의 구축, 관리, 운영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을 민간 교육기관들과 200여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Boston University 등)들을 통하여 양성하고 있다. 현재 교육을 통하여 배출된 재난관리 전문가는 중앙 및 지방정부기관, 공공기관에서 활동하거나 민간기업 BCP 컨설턴트 및 위기관리자, CRO(위기관리 중역)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BCMS 전문가 활성화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 9.11테러

였으며, 당시 국제무역센터의 본사가 완전히 붕괴되었음에도 BCMS를 통한 적절한 대응으로,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 모건스탠리의 사례를 통하여 더욱 BCMS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는 BCMS의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민간 부분의 의식개혁이 가장 중요한 핵심(Key)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2) 영국

산업화와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경영시스템의 품질표준 및 업무연속성 필요성을 인식한 영국은 일찍이 'The Civil Contingencies Act(국가비상관리법)' 제1항에 비즈니스연속성(Business Continuity)을 규정하고 산업표준화 및 BCMS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영국표준협회(이하 BSI)를 지원하는 등 인위적인 재앙에도 지속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의 불편과 불안을 없애려는 노력을 해왔다(Kim, 2009). 최근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종교 및 정치적인 목적으로 2005년 런던 지하철 폭탄테러 등 위기상황이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BCMS 도입과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되는 추세로,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e) 등 민간기업과 City College Norwich 등 고등교육기관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이 활성화되고 있다. BSI는 국내에서도 BCMS와 관련하여 ISO 22301 비즈니스연속성 관리 추진 실무과정, ISO 22301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시스템 심사원 및

선임심사원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는 등 국제표준을 선 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3) 일본

2000년 초반부터 정부(내각부)는 국가경쟁력 및 국 민의 안전문화 정착 요구에 따라 BCP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과 방재에 관한 검토회, 방재력 향상에 관한 전문 조사회, 기업 등의 비즈니스 연속성·방재 평가 검토위원회, 사업 연속성 계획 수립·운영 촉진 방안에 관한 검토회 등을 지원 및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위원 회들은 정부 관료들뿐만 아니라 관련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기업인 등 다양한 관계자로 구성되어 실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재해, 산업특성, 지역 등 다양한 형태 의 BCP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다(Kwon, 2014). 또한, 정부주도의 위원회들과 함께 관련 전문가 들로 구성된 비영리기관(BCAO)을 통해 기업에 대한 BCP 전문가 파견, 적합한 세부지침 제공 등 실제적인 지원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과 함께 재난대응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병행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 전문인력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5. 소결: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국내 BCMS 정착을 위해 국민안전처에서 추진하 고 있는 전문인력 활성화 방안은 크게 3단계로 검토 되었다.

1단계는 관계법령 제정을 통한 교육지원 및 자격체 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7개 교육기관, 1개 인증시험 기 관 및 ‘기업재난관리 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 등을 통 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2단계는 양성된 전문인력을 기업의 BCP 관련부서, 컨설팅 업체, 인증·평가 대행업체의 실무에 활용하는 것으로, 국내 BCMS 정착의 핵심과정이다. 국내 BCMS 도입은 시작단계이므로 이론적 내용을 실무에 적용시 키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의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의 성공적인 사례적용 및 민간기업(영국의 BSI, 미국의 DRI 등)에 대한 협력 요청방안이 강구되어 야 할 것이다.

3단계는 BCP를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한 기업들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BCMS를 기업경영의 필수 요소로 인식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 및 인식변화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BCMS에 대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사 례와 제도를 고찰하고, 국내 활성화 방안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의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Table 2).

첫째,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BCMS 전문인력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문인력을 숙련시킬 수 있는 기업 내의 조직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실무 적용성이 높은 교육과정(Curriculum)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까지는 주요 선진국의 교육과정을 옮기는 수준으로, 개 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내 인증시험이

Table 2. Comparison and implications

Division	Implications	Major Developed Countries	Note
Training of Professional Manpower	There is no curriculum that can be used in practice(Focus on Appli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re are various organizations and associations to support the working-level practice. • Providing detailed guideline. 	Number.1
Managing of Professional Manpower	No systematic professional manpower data and No maintenance training syste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viding professional manpower data through organizations and associations • Maintenance training for professional manpower 	"
Utilizing of Professional Manpower	BCMS professional manpower market deactiv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tivity in a variety of fields(various private enterprise and organizations) 	Number.2
Settlement of Qualification Levels	Lack of awareness of the BCMS and technical qualification pha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cognized as a important professional field 	Number.3

자격 중심으로 관리됨에 따라 전문인력의 실무역량을 파악하기 어렵다. 기술자의 정확한 실무역량 평가는 인력의 활용성을 높여 인력시장을 활성화 시키므로 역량 중심의 전문인력 관리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난대응 전반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BCMS 기술자격이 국가자격 및 그에 준하는 자격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BCMS 자격증 취득 후에 비즈니스 연속성 분석가, 관리자, 컨설턴트, 정부의 비상기획 부서, 공공 서비스 부서 등 모든 금융권 및 기업체로 진출이 가능한 주요 선진국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IV. 전문인력 활성화 방안

BCMS를 포함한 방재안전산업의 기초가 되는 전문인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자료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관리, 전문인력 활용, 자격체계 개선의 4가지 부문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전문인력 양성부문

국내 BCMS 전문인력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실무 적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실무화 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교육기관별 교육역량 차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으며, 재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의 기초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인력 POOL의 확보를 위해서는 실무자 교육과정에만 적용되는 무료교육을 대행자와 인증평가 교육과정까지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의 '국가인적 자원개발 컨소시엄' 교육기관을 확충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또한, 현재 서울 생활권 중심의 교육시설을 전국에 있는 민방위 교육시설 등을 활용한 전국 교육으로 확장시키고 저소득층, 위기청소년, 새터민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을 통한 신규 고용 시장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전문인력 관리부문

전문인력의 수준별 역량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교육이수 범위, 실적, 해당분야 경력, 취득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력개발제도(CDP)의 도입이 필요하다. CDP는 전문성이 높은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인사제도로서, 장래의 직무부분까지 예상하여 그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인사와 교육의 종합 시스템이다. CDP 구축을 위하여 현재까지 양성된 전문인력에 대한 상세 Data Base(DB)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단의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 구축 지원 프로그램 및 관리기술개발'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전문인력 DB구축과 CDP 구축의 기초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전문인력 활용부문

전문인력 활용성 증가는 해당 산업분야의 인력 수요를 증가시키고, 채용된 전문인력은 다시 해당 산업분야를 견인시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게 된다. 이 같은 인력시장의 활성화는 현재의 글로벌 시장경제에서는 국제적인 인증과 연결된다. 그러나 국내의 교육과정 및 인증체계는 아직까지 국제표준으로 인증되지 못하여 전문인력 활용성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국제표준 인증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표준 지정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공인이 쉽지 않으므로, 관련정책 및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인력 활용성 제고가 기대되는 다른 방안으로는 인증시험체계에 실무경력 반영과 실습평가를 추가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격요건의 세분화가 가능하며, 숙련된 현업 종사자의 교육 및 인증시험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자격체계 정착부문

국내 BCMS 분야는 자격체계가 정립되고 있는 신규

분야로써 개별법령(재해경감법 제10조)에 의해 신설된 인증제도이다. 그러나 BCMS 인증서는 국가자격 및 그에 준하는 자격으로 포함되지 않아 경력(실적) 관리와 보수교육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BCMS 인증 체계를 국가자격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으로 변경하여 「자격기본법 제30조 및 제34조」에 의한 전문인력 우대 및 정보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기술자격(1안) 신설, 국가 전문자격(2안) 신설, 국가공인 민간자격(3안)의 방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안은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에 따라 BCMS 기술자격을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추가하는 것으로써, 향후 실적관리, 보수교육, 자격취득자에 대한 지원강화 등이 가능하지만, 종목 추가에 따른 이해관계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2안은 개별법에서 규정된 국가자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 대책법」 개정을 통한 것으로써, 자격검정 및 인력관리를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에서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법령 개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3안은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써, 상대적으로 절차가 단순하고 빠른 시행이 가능하지만 국가 지원에 의한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가 불가능하다.

상술된 바와 같이 BCMS 자격체계의 정착과 안정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의 개선과 BCMS 기술자격의 위상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기술자격(1안) 신설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를 위한 세부 개정 절차는 <Figure 4>와 같다.

V. 결론

최근 세계적인 다양한 리스크의 증가로 인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BCMS를 포함한 재해분야 전반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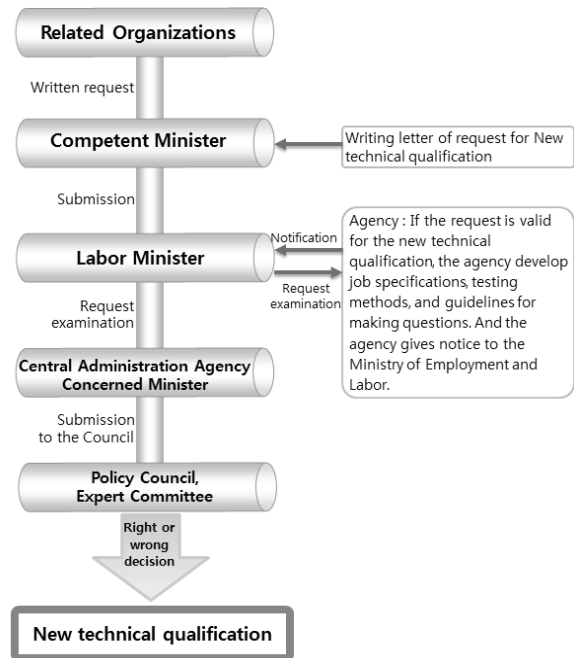


Figure 4. Process of the new national technique qualification

한 연구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인지하여 관련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고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현재 ‘기업의 재해경감제도 활성화 전략계획 및 산업별 재해경감활동계획 세부지침 개발(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10)’, ‘재해경감활동계획 세부기준 및 우수기업 인증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11)’, ‘공공기관 기능연속성 계획 국내 도입방안 연구(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13)’ 등을 통한 BCMS 활성화의 거시적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국내 실정은 제도 활용, 지침적용, 전문인력 활용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오랜 기간을 두고 재난대응 인식변화 부터 시작했던 주요 선진국의 사례와 견주어 볼 때, BCMS의 국내 정착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공식자료, 법령 및 제도, 선행 연구, 국내·외 사례검토 등을 통해 BCMS 활성화 과제를 확인하고, 여러 과제 중 산업의 기초가 되는 전문인력에 초점을 맞추어 시사점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하여 전문인력 활성화를 위한 4가지 방

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양성된 전문인력에 대한 국내 자료가 부족하고, BCP가 수립된 기업 및 기관에서도 대외비 항목으로 분류하여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확인 등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실행 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의 재난관리 연구에서 많이 연구되지 않았던 재해경감활동관리에 관한 연구로 재난 및 재난관리 연구의 범위를 기존의 조직 및 예산 등의 연구에서 인적자원의 연구로 연구의 외연이 확장됨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인력의 활성화 정책은 향후 한국의 위기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증대되는 글로벌 리스크의 증가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재해예방 산업의 중요성은 높아져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 경영시스템에서는 가시적인 이윤이 명확하지 않은 BCMS의 적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한 전문인력 활성화 방안의 적용을 통해 재해분야 전반에 걸친 의식의 전환점과 활발한 후속 연구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정부(국민안전처)의 재원으로 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MPSS-자연-2015-80].

References

Ahn, Young Hoon. 2010. Improving Plan for the Disaster Safety Management System in Korea.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2010: 1-18.

Comfort, Louis K., M. Hauskrecht, and J. S. Lin. 2005. Dynamic Network: Modeling Change in Environments Exposed to Risk. *Annual Research Conference of Public Management*

Research Association, Los Angeles, California, September 29-October 1, 2005.

Herling, R. E. 1998. Expertise: The Development of an Operational Definition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Torraco, R. J. (ed.). *Academ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ceedings*. Baton Rouge, LA: AHRD. 715-722.

Kim, Dong Wook. 2003. Disaster Emergency Management System Redesigning Plan. *Citizens Coalition for Better Government*. 1-15.

Kim, Eun Sung, Ji Bum Chung, and Hyug Keun Ahn. 2009. A Study of the Policy Paradigms for National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2009-18*. KIPA.

Kim, Jae Kyeong, Yoon Su Jeong, Chung Shick Oh, and Jae Sung Kim. 2013. A Study on the Policy for Disaster Recovery of Company. *Monthl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The Korea Society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11(1): 39-45.

Kim, Jong Eop. 2009. Into the World: International Trends; British BCP(Business Continuity Plan): Focusing on ICT. *Local Informatization*. 57: 78-81.

Kim, Joong Yang. 2004. Daegu Subway Tragedy and Disaster Management Plan. *KIPA FOCUS*. 2004(1/2): 38-86.

Kim, Tae Yun. 2003. Search of National Disaster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n South Korea. *Citizens Coalition for Better Government*. 16-41.

Kwon, Gun Ju. 2005. Improving Inspection of Specific Civil Management 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the Case of Samcheok City. *Crisisonomy*. 1(2): 79-92.

Kwon, Yung Taek. 2014. A Study on the Japan's BCP System and Policy Implication for Korea's BCP System. Ph. 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University of Seoul.

Lee, Chung Hwan. 2011.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for Business A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Lee, Ho Dong, et. al. 2009. *Disaster Management Laws and Budget, Structural Funds*. Dae Young Co.

Lee, Jae Eun and Gi Geun Yang. 2004. Enhancing the Disaster Management Effectiveness.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2004: 346-363.

- Lee, Jae Eun, et. al. 2006. *Disastronomy*. Dae Young Co.
- Lee, Jae Eun. 2000. Crisis Management Policy Effectiveness and the Implementation Structure Approach.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9(1): 51-77.
- Lee, Keun Jae. 2010. A Study on the Optimal Disaster Reduction Program for Industrial Disaster Early Response. Ph. D.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Seoul.
- Lee, Myung Suk, Soo Gil Oh, Jae Hyun Hae, and Se Jin Yang. 2008. Analyzing Governance of Emergency Response: With Emphasis on Civil Volunteer Networks.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17(3): 163-188.
- Lee, Won Hee. 2007. Improvement of Disaster Budget Related Operating. *Korean Journal of National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1: 75-98.
- Lim, Suhng Bin. 2015. Mince the Administration. Focus 03: Regional Security Community Case of Japan: Focusing on the Voluntary Disaster Prevention Organization at Community Level. *Public Officials Benefit Association*. 64(738): 20-23.
- Namkoong, Keun. 1995. Comparative Study on Disaster Management System: The Cases of the USA and Korea.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29(3): 957-979.
- Park, Dong Kyun. 2008. The Empirical Study on Local Civil Servant's Consciousness of the Disaster Management and It's Implications. *Korean Association of Governmental Studies*. 20(1): 289-312.
- Petak, William J. 1985. Emergency Management: A Challenge for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 3-7.
- Ryu, Sang Il. 2008. Network Analysis of the Disaster Response Systems in Local Government.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20(1): 53-70.
- Sung, Joo Hyun. 2014. A Study on the Error of Risk Assessment for BCM in the Enterpris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7-21.
- Yang, Gi Geun. 2004. A Case Study on Organizational Learning of Disaster Management: Focused on World Trade Center Collapse and Daegu City Subway Fir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8(6): 47-70.
- Choi, Sung Wook and Jae Yeol Yee. 2006. Exploring Safety and Risk Governance: A Case Study on the Risk Issue Related to Yeosu National Industrial Complex.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10(4): 237-259.
- Yun, Kun and Chung Ryeol Ryu. 2014. Enhancing Capability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rs.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2014-24*. KIPA.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권건주. 2005. 지방정부 재난관리조직의 효율화 방안: 삼척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1(2): 79-92.
- 권영택. 2014. 일본의 기업BCP(사업연속성계획) 제도 분석 및 한국의 정책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재난과학 박사학위논문. 171-205.
- 김동욱. 2003. 국가재해재난 관리체계 재정립 방안: 재해재난 관리체계 재정립 방안. 행정개혁시민연합. 1-15.
- 김은성, 정지범, 안혁근. 2009. 국가재난안전관리 정책패러다임에 대한 연구. KIPA 연구보고서 2009-18. 한국행정연구원.
- 김재경, 정운수, 오충식, 김재성. 2013. 기업의 재해복구 대책 방안에 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1(1): 39-45.
- 김종업. 2009. 세상속으로 해외동향, 영국 BCP (Business Continuity Plan): ICT 를 중심으로 지역정보화. 57: 78-81.
- 김중양. 2004. 대구지하철 참사수습과 재난관리대책. KIPA 행정포커스. 2004(1/2): 38-86.
- 김태윤. 2003. 우리나라의 국가재해관리체계의 모색. 재해재난 관리체계 재정립 방안. 행정개혁시민연합. 16-41.
- 남궁근. 1995. 재해관리 행정체제의 국가간 비교연구: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9(3): 957-979.
- 류상일. 2008.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네트워크 분석. *한국 지방자치학회보*. 20(1): 53-70.
- 박동균. 2008. 재난관리에 대한 지방공무원들의 인식분석과 함의. *한국행정논집*. 20(1): 289-312.
- 성주현. 2014. 업무연속성관리(BCM)를 위한 위험성 평가방법의 오류에 관한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 석사학위논문.
- 안영훈. 2010. 우리나라의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0: 1-18.
- 양기근. 2004. 재난관리의 조직학습 사례연구: 세계무역센터 붕괴와 대구지하철 화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 38(6): 47-70.
- 윤건, 류충렬. 2014. 재난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역량강화 및 관리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24. 한국행정연구원.
- 이근재. 2010. 산업체 재난 조기대응을 위한 최적재해경감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재난과학 박사학위논문.
- 이명석, 오수길, 배재현, 양세진. 2008. 재난대응 거버넌스 분석: 민간자원봉사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7(3): 163-188.
- 이원희. 2007. 재난 관련 예산 운영의 개선 과제. 국가위기관리 연구. 1: 75-98.
- 이재은 외. 2006. 재난관리론. 대영문화사
- 이재은, 양기근. 2004. 재난관리의 효과성 제고방안: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4: 346-363.
- 이재은. 2000. 위기관리정책 효과성 제고와 집행구조 접근법. 한국정책학회보 9(1): 51-77.
- 이충환. 2011. 재난관리시스템의 기업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안전공학 석사학위논문.
- 이호동 외. 2009. 재난관리 법과 예산·기금구조-원칙과 실상. 대영문화사.
- 임승빈. 2015. 행정을 말하다 포커스 03: 일본의 지역안전공동체 사례: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자주방재조직을 중심으로. 지방행정. 64(738): 20-23.
- 최성욱, 이재열. 2006. 지역사회와 위험 거버넌스 구축: 여수국가산업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0(4): 237-259.

Received: Jul. 20, 2016 / Revised: Aug. 17, 2016 / Accepted: Aug. 23, 2016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전문인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초록 최근 이상기후에 의한 자연재해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 불안요소의 증가로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재해가 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에서는 각종 재난상황에서도 기업 및 기관의 핵심업무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연속성관리체계(BCMS)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활성화 정책으로 양성된 전문인력을 통해 BCMS 관련 산업이 발전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BCMS 관련 법령·기준 등을 마련하고 지원정책을 운영중에 있으나, 정책적 접근단계로써 재해경감활동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및 관련산업 활성화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재해경감활동 정착과 관련된 여러 현안 중 산업의 기초가 되는 전문인력에 초점을 맞추어 시사점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이상기후,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전문인력 활성화

Profiles **Young Ho Eom** : He is Ph.D. Candidate in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Yonsei University. His research focuses on 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nd local government studies. His journal publications have appeared in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Policy Review(eomyoungho@gmail.com).

Suk Jin Jang : He is a master graduate in the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Kyonggi University. His research focuses on Urban flooding, City disaster and Disaster prevention(forget1771@hanmail.net).

Sung Yeol Choi : He is Ph.D. graduate in the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He is the CEO of the DPSI(Disaster Prevention Safety Institute). His research focuses on Urban flooding, City disaster and Disaster prevention(sixbong777@gmail.com).